

오늘의 유머

■아내가 예뻐 보일 때

한 무뚝뚝한 남자가 대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곁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힘겨운 목소리로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한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눈을 뜬 남자가 말했다. "당신 귀엽군." 이 말에 아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답다고 했던 말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미안해 잠깐 약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눈치 없는 남자

한 남자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멎은 채 회사에 출근했다. 그것을 본 상사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그러자 남자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말이죠. 어제 교회에 갔는데 앞쪽에 풍뚱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려고 막 일어나는데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웃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 줬더니 그 여자가 제 눈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럼 다른 쪽 눈은 왜 멎어 들어?"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다. "난 여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웃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누구 탓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환자를 나무라고 있었다. "당신이 병이 난 것은 바로 술과 담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환자가 환한 표정을 짓자 의사가 다그

쳤다. "아니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마침내 그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사를 만났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어느 날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다. "어보 고생 많았지. 저기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긴장한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음,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려줘." 그러자 아내가 한껏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자동차의 에어백이 제대로 퍼지더라고요."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큰 그릇 위에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잔뜩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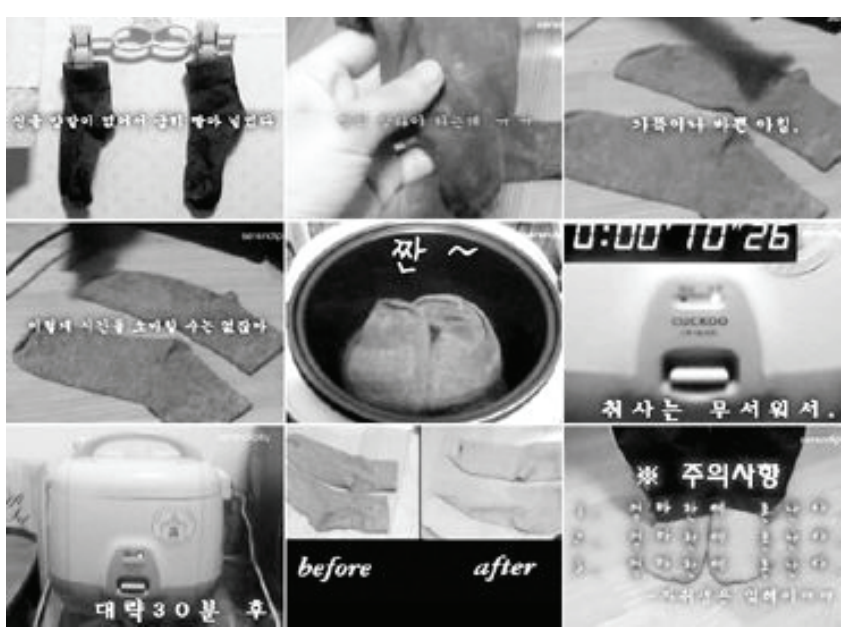
그리고 사과 앞에는 이런 말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사과를 하나씩만 집어가지요. 하늘님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이 놓여 있는 줄 반대편 끝에는 빵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있었다. 한 학생이 빵을 잔뜩 집어간 뒤 쪽지를 남기고 갔다. "빵은 마음대로 집어가지요. 하늘님은 사과를 감시하느라 저쪽에 계시니까요." ■특별한 날 식당 지배인이 웨이트리스들을 한데 모아 놓고 고신 업무 지시를 내렸다. "오늘은 다들 최고로 맵시를 내도록 하게.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말이야. 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도록!"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직원이 물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건가요?" 그러자 지배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질긴 고기가 도착했어."

리빙 센스

모공관리

모공이 늘어남 피부가 처지게 된다. 모공은 특별한 관리보다는 매일 세안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①미지근한 물 피지를 녹이려면 미지근한 물에서 세안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을 충분히 얼굴에 끼얹고 따뜻한 손으로 모공이 넓은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②거품 세정제 거품 세정이 피지를 제거하기에 좋다. 손에 세정제를 덜어낸 다음 충분히 거품을 내고 양 볼과 이마, 콧방울 순서로 거품을 세심하게 문지른다. ③수렴 화장수로 마무리 볼, 콧방울에 피지를 제거한 뒤에는 스킨, 토너와 같은 수렴 화장수를 발라서 넓어진 모공을 가깝게 조여 준다. 스킨을 냉장고에 두어서 약간 차게 한 다음 화장솜에 적셔서 1분 정도 얼굴에 올려놓으면 효과적이다.

시끌벅적 e-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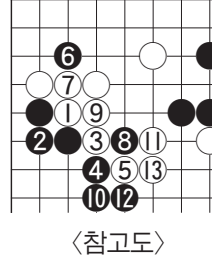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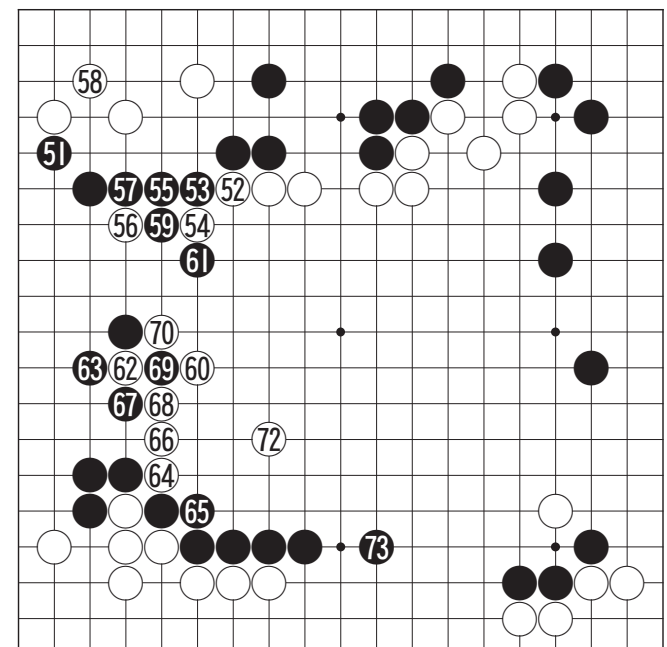
밤통으로 양말 말려 봤어요?

이리저리 꽃 단장하며 아침 출근 준비를 다 끝냈는데 신고 나갈 양말이 없다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봤을 양말 말리기 대소동. 신을 양말이 없어 급히 빨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건조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흔히 동원되는 도구는 머리 말리는 데 쓰는 드라이어나 옷을 다리는 다리미. 하지만 양말 건조를 위해 기상천외한 가전 제품이 도입됐다. 바로 밤통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밤통으로 양말 말려 봤어요' 라는 동영상이 등장해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가격이나 바쁜 아침,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드라이기를 이리저리 흔들며 양말 말리는 데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뜨끈뜨끈 밤통이다. 물론 밤이 들지 않은 빈 밤통이어야 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실속없는 기본내기

일반부 결승 4보(51~73) 白 송홍석 7단 黑 이상헌 6단 (경기) (서울)



흑 51로 붙여 간 수는 당연한 선수로 보였는데 송홍석은 골북이라고 생각했는지 백 52로 밀어 반발한다. 이것은 백이 그냥 58로 귀를 지켰을 때 흑이 54에 두는 것이 명당자리가 된다고 본 것이다. 백 52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두고 3으로 짓히는 것도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그러면 백 13까지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전혀 불만이 없는 그림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음 11월 28일 己亥)

Table of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2008-12-25. It list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Each entry includes a brief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skin care.

굿모닝 잉글리쉬 <1218> 오하오우 니혼고 <1218> 니하오 쉥구워 <295> 한자 이야기 <935>

English lesson section titled 'Do you want to come by? 함께 가고 싶어요?' with a dialogue between A and B, and a list of grammar notes at the bottom.

Japanese lesson section titled 'どこがわるいんですか.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with a dialogue and a list of vocabulary words at the bottom.

Chinese lesson section titled '三老師不在. 왕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with a dialogue and a list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ir meanings at the bottom.

Chinese lesson section titled '飢不啄粟(기불탁속) 주릴 기, 아니 불, 졸락, 토 속'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diom and its cultural context.